

‘주제관’ 경영측면에서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Change of University Library organization from the 'Subject-divisional' point of view

정재영, 서강대학교 도서관, jaeyoung@sogang.ac.kr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namtw@cau.ac.kr

Jae-Young Chung, Sogang University Loyola Library
Nam Tae-Woo,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자료구분 및 서비스의 주제적 구분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주제관 경영측면에서 도서관 조직구조를 재조명해 보고 주제관 경영의 필요성, 당위성과 함께 미래 대학도서관의 올바른 적용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행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은 조직구조에 있어서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단순히 장서관리와 보존에 머물러 있던 과거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이용과 서비스로 바뀌고 점차 ‘장소’적 개념에서 ‘기능’적 개념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 그리고, 근본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와 함께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대학도서관 자료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적 구분은 현재 개개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직구조에 있어 주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기본조건이 되는 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기존 도서관 조직

구조와의 차별성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실험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주제관 경영측면에서 도서관 조직구조의 역사를 재조명해봄으로써 대학도서관에 있어 주제관 운영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미래 도서관의 올바른 주제관 운영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대학도서관에 확산되고 있는 자료의 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적 구분과 조직구조에 있어서의 주제관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2. ‘주제관’적 경영

도서관의 조직구조는 장서 및 인력의 확장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주로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 즉, 자료의 선택, 구

입, 분류, 편목, 대출, 참고봉사 등 업무의 기능에 따라 구분되거나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 자료의 주제 혹은 학위논문,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정기간행물 등 자료의 유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경우 규모의 확장과 역할의 다양성에 따라 대체로 이러한 세가지 형태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구조에 있어서 주제적 운영이란 자료의 구분이나 서비스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구조 즉, '주제'가 도서관 조직과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즉, 분관으로 되어있던 아니면 하나의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던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위로 학문을 구분한 후 이곳에 해당 주제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서비스 할 수 있는 주제전문지식을 갖춘 주제사서를 확보해 이용자들의 주제요구를 수행하는 형태(정재영 2003, 170)나, 전통적인 기능조직과 달리 소장자료를 주제 또는 학문영역으로 분할한 다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직단위를 유기적으로 편성하는 봉사지향적 조직 즉, 일반관리를 제외한 자료중심의 주요 기능이 과(팀)수준의 주제별 조직단위 또는 완전 분산형으로 수행되는(윤희운 2002, 119) 조직구조와 함께 전체적인 조직구조가 기능형 조직구조로 되어 있지만 과단위의 하부조직으로 주제별 조직을 운영하거나 자료의 구분에 있어 각각의 주제별 자료실 또는, 열람실을 운영하는 혼합형 조직구조의 경우 즉, 실제적인 서비스의 축이 주제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이용자가 특정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주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구하는 데서 오는 불편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기능을 극대화하며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주제

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가공을 통해 제공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주제관 경영의 발전사

3.1. 국외

도서관은 주제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모든 현대 도서관의 도서관 분류법 즉, 듀이십진분류법(DDC), 국제십진분류법(UDC), 의회도서관분류법(LCC) 등이 모두 주제에 따라 설계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 주제적 운영 사례들은 이러한 분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BC 7세기 아슈르바니팔도서관은 궁전안에 방별로 주제를 구분하였는데 방마다 주제별 즉, 역사와 정부간행물 자료실, 전설 및 신화에 관한 자료실 그리고, 과학과 의학등으로 자료를 배열, 보관하였다.(김세익 1992, 61-62) 이와함께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많은 사원도서관들의 tablets들도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이 함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자료구분에 있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세익 1992, 66)

BC 3세기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10개의 자료실도 분과학문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었다.(James thompson 1977, 223) 즉, 이들 도서관들은 지식의 철학적 분류에 따르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용편의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

또한, 로마의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도서들의 경우에도 주제에 따라 배열되었는데 주제분류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하다.(Michael H. Harris저, 전명숙, 정연경역 1991, 79) 하지만, 4세기 초 로마에 있던 28개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이 희랍어의 책과 라틴어 책의 두개의 구분아래

다시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세익, 1992, 80)

대체로 한두명의 수도사들에 의해 동료 수도자들의 연구행위에 대한 지원 즉, 관련정보의 제공과 이론적 의견 표현을 통한 정보자문 역할을 함으로써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중세 수도원 도서관들의 경우에도 점차 도서관 규모가 커지면서 도서들을 대략적인 주제에 의해 분류하였으며(Michael H. Harris저, 전명숙, 정연경역 1991, 119), 이러한 사상은 근대에 와서도 적용되었는데 코나도 게스너(Konrad Gesner, 1516-1565)의 경우 중세시대의 학습일람표에 의거해 도서관 자료를 구분함으로써 대학교육과정의 질서대로 실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였다.(James Thompson 1977, 224)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회교문화의 전성기에 모슬렘도서관들의 배열방법은 큰 도서관의 방마다 각기 다른 주제의 책을 둬으로써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였고 자료에 대한 참조와 함께 주제전문가를 두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김세익 1992, 114-115)

중세시대의 대학도서관들은 수도원의 영향으로 수도원도서관과 거의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년간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 수도원 도서관이라면 지식을 활용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세기의 막을 내리게 하고 근대사회를 맞이하게 한 것은 대학도서관이었다. 즉, 도서관의 기능이 보존과 함께 활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수도원 도서관들과 다른 점은 자료들이 단과대학이나 학부에서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 나누어져 있던 점이다. 특히, 소르본대학의 경우 초기에 도서관 장서를 10개의 전문분야로 분류하여 배열하였는데 이것은 신학, 의학, 법률학과 'trivium'과 'quadrivium'으로 알려진 중세 교양학부 과정의 7개 전문분야를 의미했다. 즉 'trivium'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의미하며 'quadrivium'은 산수, 기하,

천문학, 음악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장서구분이 교과과정에 기초해 학문 주제별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부마다 다른 색을 사용해 모든 자료에 소속 학부의 색으로 도장이 찍혀져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김세익 1992, 126-131)

소르본 대학 도서관은 현재 인문과학대학의 도서관으로 봉사하고 이외에 법학, 의학, 약학 대학 도서관들이 있으며, 썽뜨 주느비에브(Ste. Genevieve) 도서관과 새로 설립된 오르세이(d'Orsay)과학 도서관도 있다. (Michael H. Harris저, 전명숙, 정연경역 1991, 167)

1602년 개관한 보들리안도서관은 4가지 주제 즉, 신학, 법률학, 의학, 예술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뒤 같은 세기에 가브리엘 노데(Gabriel Naude)가 '도서관분류목록'을 출판하였는데 그는 이책에서 실제적인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여 '대학에서의 자료구분을 신학, 물리학, 법학, 수학, 인문학, 기타로 나누었다.

(James Thompson 1977, 224)

20세기초 도서관의 장서가 빠르게 증가하고 서고 면적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도서관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자료의 분산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과도서관이 그 규모나 숫적인 면에서 더 늘어갔다. 이에 따라 학과 도서관을 원하는 사람들과 중앙도서관에 모든 장서를 보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큰 대학교에서는 학과도서관이 유행하였으며, 1950년대까지 중앙도서관의 공간부족으로 작은 대학들에서도 학과 도서관이 번성하게 되었다.(Michael H. Harris저, 전명숙, 정연경역 1991, 298-301) 이와함께, 새로운 봉사를 전제로 새 도서관 건물이 건축되고 대부분 내부가 벽이 없는 넓은 공간화 되면서 도서와 다른 도서관 자료들을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가제와 주제 분야로 자료를 나누었다.(Michael H. Harris

저, 전명숙, 정연경역 1991, 302)

과단위의 교수들에 의한 노력으로 생성된 학과도서관들은 1)비효율적이고 비 실세적인 중앙도서관의 시설, 2)미고등교육의 국면과 지침의 변화, 3)독일식 세미나도서관 등의 영향과 장서예산, 시설 등의 부적절성과 과별도서관의 필요성 때문에 창설 및 확장되었다.(남태우 1995, 9) 이러한 학과도서관들은 법학, 신학,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점차 자생적 분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분관도서관의 역사는 도서예산 통정의 결함 및 도서관자료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 안정성의 결함, 서지적 접근의 불완전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 중앙집권화하려는 사서들과 이를 반대하는 교수들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이에 대한 타협점으로 행정적인 통제와 자료에 대한 개선된 접근점을 제공해주는 대단위(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 및 응용과학)내에 소규모의 주제장서로 통합하는 주제구분 계획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대체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구분으로 이루어지거나, 종종 별도의 과학도서관도 설치하였으며 분관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에 소장되기도 하였다.(남태우 1995, 11)

이러한 구분계획은 4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1)기술적 서비스와 고급행정을 제외한 도서관 기능들을 주제분야(예; 사회과학, 인문과학, 비즈니스와 경제학, 과학 및 기술과학)로 구분하는 것, 2) 자유로운 자료접근이 절대적일 것 3)직원들은 가능한 주제전문가이어야 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남태우 1995, 11) 이에 따라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주제별 분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도서관의 경우 1817년 개관된 법학도서관을 시작으로 현재 120여개관이 넘는 주제별 또는 과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도서관의 경우 과학, 기술과 미술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중앙도서관(Main Library)과 아시아도서관(Asian Library), 생물의학도서관(Biomedical Branch Library), 경영학도서관(David Lam Library), 교육학도서관(Education Library), 인문.사회과학도서관(Korener Library), 법학도서관(Law Library), 생명과학도서관(Life Science Library), 농.식품학도서관(MacMillan Library), 수학도서관(Math Library), 음악도서관(Music Library) 그리고 방송교육대학도서관(Extension Library)의 12개 주제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대에 걸쳐 자료의 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 주제적 운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서구에 있어 이러한 주제적 운영은 대학도서관의 규모 및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점차 분관화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3.2 국내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도서관 역사가 짧고 규모상 1·2개의 분관(대체로 의학, 법학, 신학, 농학, 의학, 음악분야를 분관으로 유지하고 있다.)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과별 또는 주제별 도서관이 발전되지 못했다. 더구나 부족한 장서로 인해 관리 및 보존에 치중하게 됨에 따라 서가를 폐가제로 운영해 왔고 조직의 구조 또한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기능적구조 내지 대출여부의 구분과 관리를 위한 자료형태별 조직구조가 첨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자료배치 및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 전산화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점차 이용자들의 요구가 주제화, 전문화되기 시작됨에 따라 기존 도서관의 자료배

열에 따른 문제와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구분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서구와는 달리 대학의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대학의 경우 점차 대학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1·2개의 분관을 유지하거나 중앙도서관을 주제별로 구분 또는,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1995년 전남대학교에서 최초로 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주제사서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주제별 자료실이 등장함으로써 자료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적 운영이 시작되었다.

2004년 1월 현재, 대학도서관내에 자료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 주제적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185개 대학도서관 중 56개 도서관(30.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정재영 2004, 184)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의 자료구분 및 서비스에 있어 주제적 운영에 대한 역사가 짧은 국내의 경우 이러한 주제적 운영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즉, 주제사서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주제사서와 일반사서의 구분이 없고, 개별 대학도서관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시도가 자료의 구분만을 위한 형식적인 주제구조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학과와 주제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의 현실에 적합하고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서의 주제적 전문화, 인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도서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점차 실험적 수준을 벗어나 개개 도서관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각각의 주제별 조직에서 자료선정, 구입, 정리 및 열람서비스 일체를 담당하는 일체형과 수서, 정리 등의 일부 기능별 조직과 정기간행물실 등의 자료형태별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람기능 즉, 참고봉사기능만을 강화시킨 혼합형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도입된 팀제를 적용해 하나의 팀에서 주제분야를 망라한 모든 주제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제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직까지 실험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무리한 적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모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용에 따른 방법과 절차, 과정 및 필수요소 및 점검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4. 미래형 대학도서관의 주제관 운영 방안

미래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대상들과의 접속 및 정보교환 방법의 제공과 함께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및 검색능력에 있어 편차가 크고 요구 및 이용행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요구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의 위양 및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정보요구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층수의 단순화를 포함한 조직구조의 평면화 그리고,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하는 네트워크화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윤효윤 2002, 142-143)

이와함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도서관 내 업무의 자동화에 따라 전산 업무를 담당할 조직에 대한 고려와 함께 디지털자료의 선정에 있어 형태에 의한 조직은 기술적 전문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겠지만 주제에 의한 조직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판

단하고 실제적인 이용과 서비스에 까지 책임을 져야할 주제별 조직의 주제사서에 의해 이루어 져야한다.

이에 대해 Sheila Creth는 적절한 주제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들의 통합팀을 형성해 도서관의 전체적인 장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Gorman, Miller 2000, 349)

따라서, 이러한 추세 및 정보환경의 변화와 '주제적 운영의 효과적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과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끊임없는 변화 즉,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대안과 전문성 강화라는 추세에 비추어 주제관을 조직구조에 있어 부문화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의 각 주제조직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확보와 함께 단순한 자료의 구분만이 아닌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제적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국, James Thompson이 도서관의 역사원리에서 주장한 것처럼 “도서관은 지식의 저장고이므로 반드시 주제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며 (15원리), 이러한 주제별 그룹화는 실제적인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16원리)”는 주장과, Bestiampillai와 Havard-Williams의 “주제전문화는 최적의 접근법이며 도서관 계층구조의 목표”라는 결론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주제적 운영은 지속적인 ‘고려’의 대상이자 이용과 서비스의 중심적 ‘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세익. 1992. 『도서·인쇄 도서관사』 (서울 : 아세아 문화사).
 남태우. 1995.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분관제도 에 관한 고찰, 『국립대학도서관보』,

13, pp.1-24

남태우. 정재영. 2003.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34(2). pp.163-185.

윤희윤. 2002.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이용재. 2000.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별 참고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2). pp.69-86.

정재영. 남태우. 2004.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자료실 조직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pp.173-193.

Gorman, G. E. & Miller, Ruth. H. 남태우 역. 2000. 『디지털환경에서의 장서관리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Harris, Michael H. 저, 전명숙, 정연경역. 1991. 『서양도서관사』 (서울 : 지문사).

Moran, Barbara. B. 2001. "Restructuring the university library: a North American Perspectiv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7, No1. pp.100-114.

Olorunsola, Richard. 2000 "Libraries as Bureaucracies: The Viewpoints of Librarians." *Library management* vol.21. No.1. pp.42-48

Thompson, James. 1977. 『A history of the principles of librarianship』 (London : Clive Bingley).